

# 안갯속 '5강 티켓' 싸움...한가위 연휴가 최대 승부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22-26일)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추석인 24일이 야구가 없는 월요일이어서다. 하지만 치열한 순위 싸움에 발을 들여놓은 팀들은 한가위 분위기를 느낄 여유조차 없다. 이번 추석 연휴가 숨 막히는 순위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가을야구'를 향한 중위권 전쟁이 최대 승부처를 맞았다.

LG·KIA·삼성 '가을야구 운명' 상위권 '천적' 세 팀이 좌우  
KIA, 21경기 뻥뻥한 일정 부담...LG·삼성과 맞대결 변수



프로야구는 현재 전체 경기일정의 약 90%를 소화했다.

1위는 두산이 확실시되고, 2위 SK, 3위 한화, 4위 넥센으로 이어지는 상위권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대 관심사는 5위 싸움의 결과다. LG, KIA, 삼성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PS) 막자 타승권이 걸린 5위를

향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19일 현재 5위 LG와 7위 삼성은 정규리그 종료까지 각각 14경기를 남겼다. 6위 KIA는 가장 많은 21경기를 치러야 한다.

승차 2경기 안에서 5위 접전을 벌이는 세 팀의 운명은 상위권에 자리한 '천적' 세 팀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선두 두산과 5경기를 더 붙여야 한다. 올 시즌 11전 전패, 작년 포함 13연패 중인 두산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승수를 따내야 LG의 5위 수성이 쉬



LG 류중일 감독

KIA 김기태 감독

삼성 김한수 감독

워진다.

KIA는 3위 한화와의 5번의 대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KIA는 올해 달라진 한화에 3승 8패로 크게 밀렸다.

삼성은 4위 넥센과의 세 경기가 버겁다. 삼성은 넥센에 올 시즌 3승 10패로 절대 열세다.

KIA와 LG, KIA와 삼성은 상대 팀에 치명타를 안길 맞대결을 남겨뒀다.

KIA와 LG는 27-28일 잠실구장에서 외야무다리 대결을 벌인다. KIA는 또 10월3일 삼성과 시즌 마지막 대결을 치른다.

KIA는 LG에 6승 8패, 삼성에 6승 9패로 뒤져 확률과 경기 일정을 고려할 때 모두 이기기 않는 한 5위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다.

LG는 삼성과의 시즌 대결을 9승 7패의 우위로 마쳤다.

이미 경기를 많이 끝낸 LG와 삼성은 10월 띄엄띄엄 편성된 일정에 따라 총력전을 펼칠 힘을 비축했다.

KIA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정규리그 종료일인 10월13일까지 뻥뻥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대신 승리를 많이 따내면 LG와 삼성을 따돌릴 수 있

다는 희망을 품는다.

현재 5위 LG, 6위 KIA, 7위 삼성은 1경기 차로 다다다닥 붙어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LG는 22-23일 잠실 안방에서 kt와 맞붙은 뒤 24일 추석 하루를 쉬고 25-26일 인천에서 SK와 격돌한다.

KIA는 이 기간에 대전에서 한화, 수원에서 kt와 대전이 잡혔다. 삼성의 맞대결 상대는 롯데(대구), 한화(대전)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최하위 kt가 쥐고 있다.

kt가 탈꼴찌를 향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중위권 팀들의 혈투에서 '고춧가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삼성은 상대 전적에서 11승 3패로 절대 우세인 롯데를 상대로 또다시 '천적' 본능을 발휘해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잔여경기 수가 적은 LG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조금이라도 더 달아나야 '유광점퍼'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KIA, 삼성은 뒤집거나 최대한 승차를 줄여야 '가을야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세 팀에는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류현진, 한가윗날 시즌 6승 출격

샌디에이고戰 선발 등판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한가윗날 선발 등판해 시즌 6승 수확에 도전한다.

다저스 구단은 20일 배포한 보

도자료에서 류현진이 24일 오전 5시 10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이 경기는 올해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다.

류현진은 18일 홈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무실점으로 역투했고, 팀의 8-2 승리로 4번 도전 만에 시즌 5승(3패)째를 안았다.

류현진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통산 6승 1패를 올려 '천적'으로 입지를 굳혔다. 류현진이 가을 잔치에서도 계속 선발 투수로 뛰려면 샌디에이고전에서도 인상적인 내역을 선사해야 한다.

이번에도 승리를 따내면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진출 후 통산 39승째를 올린다. 일정상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에 시즌 마지막으로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 류현진은 최종전에서도 승리를 수확하면 통산 40승을 채우고 2018년을 마친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기부 토크콘서트' 행사가 끝난 후 기보배 선수와 참가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빛고을 스포츠스타 재능기부 '눈에 띄네'

양궁 기보배·육상 정혜림 등 일선학교 찾아 학생들과 교감 나뉨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광주 출신 스포츠스타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기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선포대·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스타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등 교육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

로, 이번에는 지역 출신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기보배가 진행한 재능기부 행사에는 화정중학교와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 학생 90명과 일반시민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기보배는 '금빛을 향해 화라'라는 주제로 운동선수로서의 성장

과정과 마음가짐, 대회 경험 등을 자유롭게 말하며 학생들과 교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양궁을 체험해 보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육상 정혜림(광주시청)은 지난 13일 전남제고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육상선수로서의 성장과정과 슬럼프 극복 방법 등을 전하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부딪쳐서 경험하라"고 당부했다. /백희중기자 ehsql01@kjdaily.com



실기교육에 앞서 김응식 광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오순근 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교육 성료

다양한 프로그램...역량 강화

시민들이 생활체육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교육이 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19-20일 이틀간 빛고을체육관에서 광주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도자 실기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교육은 지도자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해 전달·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몸짱 다이어트로 화제가 됐던 정다연(헬스 트레이너)씨가 피규어로비스 GX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하는 등 지역특성상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도자들에게 호평 받았다.

김응식 광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실기교육을 통해 지도자들의 역량도 키우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중기자 ehsql01@kjdaily.com

## 광주·전남 장애인AG 선수단, 종합 3위 선봉

광주, 사격 김근수·이지석, 탁구 김정길·김영진 금빛 사냥  
전남, 사격 이윤리 대회 3연패 도전·골볼 메달권 진입 기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광주·전남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전남선수단은 지난 19일 인천훈련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해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한국은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17개 종목 3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3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9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선수단은 탁구·양궁·사격 등 광주시청 장애인실업팀을 중심으로 선수 17명, 코치 3명, 로터 2명 등 5개 종목 총 22명이 참가해 종합 3위 수성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광주시 선수단은 사격 남자공기총 김근수·이지석, 탁구 TT-4 남자

복식(김정길·김영진), TT-1 여자단식(서수연), 양궁 혼성 W1컵파운드(김옥금)이 금빛 도전에 나선다.

전남 선수단은 골볼·론볼·볼링·보치아·배드민턴·사격·배구 등 7종목 15명(임원3, 선수12)이 출전한다. 특히 '사격의 여왕' 이윤리(44·지체1급)는 2008년 광저우패럴림픽 세

계신기록 보유자로 장애인아시안게임 3연패 신화를 노린다.

또한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 중 최다 선발된 전남 장애인 골볼팀 직장운동경기부 김진 감독과 김철환(38·시각1급), 손원진(25·시각1급), 임학수(30·시각5급), 김찬우(22·시각1급)는 최근 국제골볼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해 2위로 입상하는 저력을 보여 메달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서 불링 금메달을 획득한 민진호(52·지체4급)선수와 첫 선수 역사 메달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선수단 최고령 선수인 론볼 소완기(65·지체2급), 볼링 신백호(48·지체1급), 배구 김은래(55·지체3급), 배구 김동준(41·지체2급), 배드민턴 전선우(34·지체)선수 5명은 장애인아시안게임 첫 출전이지만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으로 입상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종일(62·척수1급) 론볼 국가대표 감독은 "전남도민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다음달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로 출국한다.

한편, 광주장애인체육회는 다음달 5일부터 현지 참관단을 파견해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선수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백희중기자 ehsql01@kjdaily.com

## 광주FC, 승격 최대 고비

23일 대전과 홈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놓고 대전시티즌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K리그2 29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광주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7경기 5무2패로 승점을 쌓지 못했고, 4위를 지키기 순위도 5위로 처졌다.

그 틈을 타 대전이 치고 올라왔다. 대전은 최근 8경기 6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렸고, 광주를 승점 6점 차로 따돌리고 4위에 안착했다.

광주는 이번 대전과 홈 맞대결에서 패하면 승점 9점 차로 벌어진다. 산술적으로 쫓아갈 수 있지만, 현재 시즌 막판 이기에 절대 분위기를 내어줄 수 없다.

승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전과 3점 차 추격뿐만 아니라 하위권인 서울이랜드, 부천FC1995와 연전에 부딪을 수 있다. 대전전 승리는 반전의 불씨이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올 시즌 대전과 1승 1무 1패로 팽팽했고, 원정에서 대역전을 이룬 기억을 살려내면 충분히 원하던 분위기로 회복할 수 있다. /백희중기자 ehsql01@kjdaily.com